01 교회소식
만민의 파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찬양하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의 향을 올려드린 감동의 '2022 만민하계수련회' 캠프파이어.

02 생명의 말씀
'선' 시리즈
세례 요한으로 다시 태어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변함없이 지키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의 영광을 구했던 엘리야의 선.

03 기획특집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

04 간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만민하계수련회 교육 및 은사 집회 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다양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만민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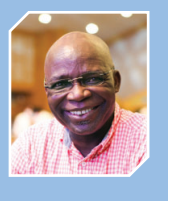
제975호 2022년 8월 2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수련회를 통해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전 세계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명호 목사
[예수교아프리카성결회 총회장]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며 제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강사님을 통해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세바스찬 임페토 펭고 장로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만민교회]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라는 교육 말씀에 큰 힘을 얻었고, 직접 믿음의 본이 되어 이루어 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저릭 선교사
[몽골 만민교회]

*"이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모습, 이것이 '만민'입니다."*

조찬형 목사
[필리핀 까비떼 만민교회]

*"늘 사모하고 기다려 왔는데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행복했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져 더 뜨겁게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우쉐메이 집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민교회]

*"당회장님과 함께한 행복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사랑, 행복이 넘치는 만민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구향서 집사
[호주 골드콧]

# 엘리야의 선(善)_3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요한복음 3:28~30)

당회장 이재록 목사

말라기 4장 5~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한 대로, 엘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 의가 없고, 겸비해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오직 순종만 했지요. 북이스라엘 아합왕 시대에 홀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 불의 응답을 끌어내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나타내는 등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는 승천한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사모함이 더욱 승해졌지요. 무엇보다 성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밝히 알게 되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불붙는 듯했던지 결국 다시 이 땅에 세례 요한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어떠한 분야를 선으로 여기며 그토록 기뻐하신 것일까요?

## 1. 자신이 엘리야인 줄 몰랐던 세례 요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장차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지요.

누가복음 1장 13~17절에 기록된 대로 "…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했습니다.

그 후 엘리사벳이 수태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는 심약했지만, 연단을 받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산 채로 들림 받은 후 모든 것을 알게 되니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왔을 때는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임해 있기 때문이었지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어려서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의 부모가(눅 1:6)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 준 말씀을 명심하여 얼마나 잘 양육했겠습니까? 또한 세례 요한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었고 세상에 드러날 때를 정확하게 주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유대인들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줄 몰랐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마음이 담긴 영은 받았지만, 부모의 기로 인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니 영 자체가 마음이요, 부모의 기를 전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 잘 아셨지요(눅 2장).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의 영 안에 엘리야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어렴풋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마음의 주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세상과 구분되어 절제된 삶을 살며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깨달아 갔지요. 즉 '자신이 오실 이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주관 받으며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세상과 구분되고 절제된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왜 왔는지 알았으므로 완전히 구분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 2. 자기 본분을 변함없이 지키는 마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때가 되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지요(마 3:5~6).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지 4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외침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혹 그가 바라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하게 됩니다(눅 3:15).

이때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말하지요(눅 3:16).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고 전파하니 사람들은 장차 오실 분에 대해 사모함이 더했지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큰 선지자인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며 자신을 철저히 낮추니 백성들은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일까?' 심히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며 사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지요.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합니다(요 3:26).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내 시대는 끝났구나!' 하며 슬퍼했을까요? 아닙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br>2부 11:30 A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 11:00 PM |
| 금요철야예배 | 11:00 PM |
| 수요예배 | 7:00 PM |
|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 8:30 PM |
|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 9:00 PM |
|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다니엘철야 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세례 요한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지요(요 3:28~30). 제자들을 타이르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본분을 되새겼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진실로 기뻐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주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마음은 순교하기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변함없이 지킨 점을 기뻐하시며 선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 3.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며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믿도록 그 길을 예비한 것처럼 오늘날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분자들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설령 직분이 없어도 성도로서 전도의 사명이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어떠한 사명을 맡았다 해도 변함없이 자기의 본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릇이 되려면 사심 없이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며 주님만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자신도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지요. 또 주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나보다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중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기득권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나는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의 큰마음이지요. 각 분야에서 일꾼이 세워질 때도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게 될까?'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머리로 세워지길 바라야 합니다.

이것은 주의 일에 대한 열심이 없거나 식어서 뒤로 물러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설령 나보다 못 한 사람이 머리로 세워졌다 해도 그가 충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선이지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칭찬받아도 시기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으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엘리야처럼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본분을 변함없이 지켜야 하지요.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으며 그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획특집

한국

### "어깨 유착성 관절염을 치료받았습니다"

남순옥 집사 (56세)

2022년 6월부터 양쪽 어깨의 통증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일상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바늘에 콕콕 찔리는 듯한 통증이 있었고, 잠잘 때도 통증으로 인해 좌로도 우로도 눕지 못해 매우 괴로웠지요. 어깨가 눌리게 되면 찌릿찌릿한 통증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

병원 검사 결과, 어깨 유착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민하계수련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환자를 위한 랜선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셨지요.

✦

그러던 7월 18일, 랜선 기도회 때 왼쪽 어깨가 치료되고 25일에는 오른쪽 어깨를 치료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니 수련회에 가기도 전에 치료해 주셨지요. 지금은 양쪽 어깨 모두 통증이 전혀 없고 자유자재로 움직여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품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신 주님, 응답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콜롬비아

### "피부 알레르기를 치료받았어요"

릴리아나 우사마 성도 (29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이틀 전까지만 해도 가려워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지요. 수련회 때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했더니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가려움증과 알레르기가 사라졌습니다.

페루

### "하지정맥류로 인한 통증이 사라졌어요"

앙헬리까 깜뽀스 성도 (61세)

저는 하지정맥류로 인한 통증을 치료받기를 원해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캠프파이어 시간에 충만하게 찬양과 율동할 때 온몸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이후로 정맥류로 인한 다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베네수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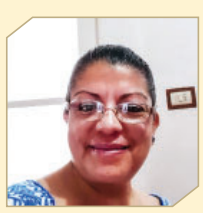
### "독감을 치료받았어요"

비앙까 아쎄베도 성도 (35세)

저는 독감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 참가해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더니 치료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 뒤 더 이상 코 막힘도 없고 온몸에 있던 독감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멕시코

### "오른팔 통증을 치료받았어요"



마리아 라미레스 성도 (55세)

약 5개월 전부터 오른팔 통증으로 인해 잠자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수련회 첫날 회개의 영이 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통회자복을 하였는데, 갑자기 오른팔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이 느껴지더니 통증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2022 만민하계수련회

#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다양한 치유의 역사 나타나

**지난 8월 1일 '2022 만민하계수련회' 첫날 저녁, 교육 후 진행된 은사 집회에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전체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다양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져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인도

## "이제 허리를 구부릴 수 있고, 앉고 일어서도 문제없으며, 아주 잘 걷습니다"

**만주 성도** (35세)

10여 년 전 척추가 압박되는 사고를 당해 척추에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있어도 참을 만했는데 통증이 심해져 한걸음 옮기기조차 쉽지 않았지요. 병원을 10여 군데를 가 보았지만, 의사는 약만 처방해 줄 뿐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저는 척추 통증으로 인해 허리를 구부릴 수도 없었고, 쪼그려 앉을 수도 없었으며,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불편했고, 매우 힘이 들었지요. 이에 따라 자주 결근하게 되니 직장에서는 제게 일을 그만두면 어떻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잃는다면 너무나 막막했기에 무척 염려되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심한 통증으로 인해 휴가를 냈고 약을 먹으며 통증을 견뎠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고 물 마시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친척이 GCNTV HINDI를 소개해 주었지요. 델리 만민교회에 전화해 상담받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델리 만민교회에 전화해 상담받은 뒤에는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GCNTV HINDI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만민하계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

드디어 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은사 집회에 저는 인도와 한국의 시차로 인해 근무 시간과 겹쳐 생방송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퇴근길에 녹화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통증이 사라져 허리를 구부릴 수 있고, 앉고 일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아주 잘 걷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케냐

## "다리 통증과 딸의 폐렴을 치료받았습니다"

**모니카 성도** (39세)

제 딸 쟈스민(2세)은 폐렴으로 인해 기침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아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기침이 멈추고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게 되었지요.

이뿐 아니라 저는 4년 동안 고통받았던 다리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다리가 경직되어 잘 걷지 못하거나 무릎을 구부리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기도를 받은 뒤 통증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잘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키스탄

## "10년 된 5cm의 가슴 멍울이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니다 성도** (70세)

어느 날, 저는 아시프 성도로부터 만민하계수련회 온라인 링크를 받았습니다. 만민하계수련회 온라인 링크를 인도 델리 만민교회에서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보내 주는데, GCNTV URDU 시청자인 아시프 성도가 그것을 제게도 보내준 것입니다.

저는 이 온라인 링크를 통해 처음으로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을 체험하였습니다. 제게 있던 10년 된 5cm의 가슴 멍울이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감쪽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1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